

An eco-friendly global ink company taking a new leap forward in celebration of its 75th anniversary
Dongyang Ink Co., Ltd.

창사 75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 하는 친환경 글로벌 잉크회사

|

I. 개요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친환경 글로벌기업’이라는 기업슬로건 아래 끊임없이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 친환경기조로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동양잉크가 창사75주년을 맞이했다.

Writer

(주)동양잉크

II. Since 1948

올해 75주년을 맞이하는 (주)동양잉크는 현재 평택1, 2공장,

Contents

- I. 개요
- II. SINCE 1948
- III. 글로벌 잉크제조회사의 진출
- IV. 끊임없는 기술 개발
- V. 연포장 친환경 인쇄의 든든한 지원군

[사진1] 1973년 서울 창동



화성3공장, 중국 산둥성 제남 황관 공장까지 4개 공장, 5곳의 직영 영업소를 운영하며 연간 1,000억원(중국법인 포함) 매출이 넘는 국내 최대 명문 잉크제조 회사로 성장하였다.

동양잉크는 창업주인 故 최수학 회장이 1948년에 용산구 원효로 자그마한 공장에서 삼본롤러 1대와 드럼통 절반 크기의 솔 그리고 공기름 4말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설비들은 대부분 일본

인이 놓고 간 기계들이었으며 잉크 원료조차 구하기가 어려워 잉크제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쇄잉크 제조 시 필수설비인 삼본롤러를 직접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산1호 인쇄잉크 제조용 삼본롤러이다. 이를 통해 광복 이후 잉크공급난에 시달리던 국내 인쇄업체에 잉크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6.25전쟁 이후 송인동 공장을 거쳐 1973년 7월에 서울

창동에 1,200평 공장을 지어 광택잉크, 골판지잉크, 금속분 잉크 등을 국내 순수자본으로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기에 이르렀다[사진1]. 특히 1960년 후반부터 대한민국 수출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포장인쇄업체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골판지 전용잉크(수성 Flexo ink)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독자적으로 골판지 잉크를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수출 포장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제1공장은 1987년 현재 본

[사진 2] 본사 및 1공장, 2공장, 3공장, 중국 제남황관유목



[사진 3] 삼천만불 수출의 탑



사가 위치한 평택시 진위면에 연간 15,000톤 생산규모의 공장으로 확장이전하였으며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평택 제2공장, 화성 제3공장(그라비아 잉크생산), 중국 산둥성 제남황관유묵 회사를 설립하여 옅색잉크, 플렉소잉크, 그라비아 잉크, PCB용 잉크, 모바일용 잉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잉크를 개발 및 제조하는 잉크 종합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다[사진 2].

Ⅲ. 글로벌 잉크제조회사의 진출

1980년대부터 국내 내수시장에서 잉크제조 명문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진 후 동양잉크는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외 유수의 잉크메이커들과 경쟁해도 문제없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태국, 홍콩 인쇄시장에 잉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약 50개국에 수출 중인 동양잉크는 2004년에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제남황관유묵 법인을 설립하고 10,000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6,000톤 규모의 잉크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제남황관유묵은 중국 내수시장 전체에 잉크를 공급하고 아시아 20여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 법인에서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잉크품질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에도 많은 잉크를 공급함으로써 2011년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사진 3]하여 국내 최대 잉크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였고 현재 옅색잉크, UV잉크, 무용제타입의 친환경 잉크 등 다양한 잉크를 전 세계 인쇄 및 포장업계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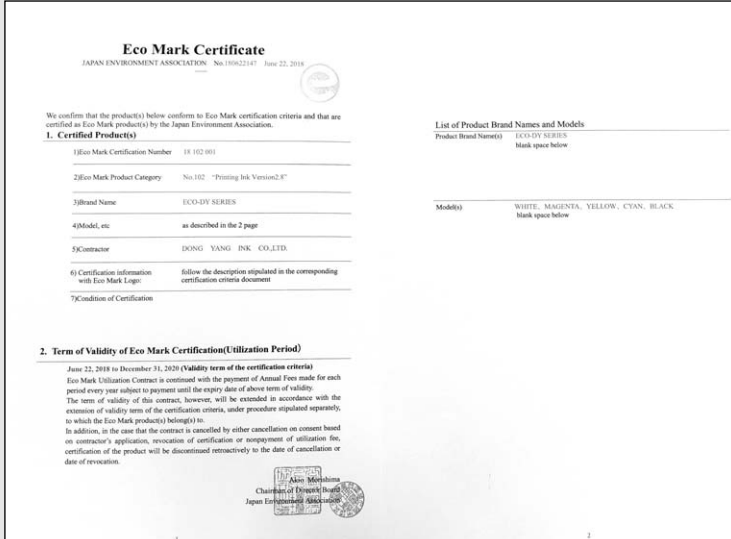
Ⅳ. 끊임없는 기술 개발

1988년 과학기술처 인가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2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옅색, UV, 그라비아, PSR 잉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잉크품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쓴 결과 기술혁신형기업(INNO-BIZ)선정, 글로벌 강소기업선정 등 외부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친환경 및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된 원적외선 항균잉크는 더욱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인쇄물을 만들자는 동양잉크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실이다.

방사율 88.3%, 탈취율 68%, 항균성 99.9%를 달성하여 한국원적외선 협회의 인증을 받은 원적외선 항균잉크는 잉크 고유의 전이성, 내수성, 건조성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고 객친화적 기능을 실현한 제품

[사진 4] 에코마크 인증서



이다. 원적외선은 고온에서 방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양잉크의 제품은 인체 온도와 같은 37℃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범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추가적으로 그라비아잉크 부문에서 동양잉크의 친환경

개발 노하우는 원적외선 항균 MATT OPV 개발로 이어졌다.

이 제품은 PET, NYLON, OPP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한 도포용 코팅재로, 48시간 99.9%의 우수한 항균성을 유지하여 원적외선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강력한 내열성 및 범용성은 이 제품의 특징점으로, 방담 OPP나 OPP소지 등에 인쇄되는 과일, 채소의 포장재부터, 일반적인 가공 식품용 과자 필름, 라면봉지, 심지어 레토르트 살균 제품인 국밥, 국요리, 커피연질 포장재, 나아가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류 포장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알코올 그라비아 잉크를 통한 일본 에코마크 획득은 또 다른 친환경적 성과이다. 에코마크는 일본 환경협회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독일의 블루엔젤 마크와 함께 가장세계적인 친환경 라벨로 평가된다. 동양잉크는 국내 그라비아 잉크 중 최초로 일본 에코마크를 획득하였다[사진 4].

‘에너지절약’, ‘온난화방지’, ‘유해물질’, ‘생물다양성’의 4개 영역에서 고른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일선 작업환경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였다. 지속적인 품종 개발의 노력 끝에 이를 극복한 동양잉크는 현재 알코올 베이스 그라비아 잉크를 비롯하여 친환경 후렉

[사진 5] 친환경 Alcohol Type 그라비아 잉크



소 잉크, 수용성 그라비아 잉크 등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사진 5].

이외에도 모바일용 베젤잉크의 기술개발로 관련 기술 9건을 국내외 특허 출원하는 등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V. 연포장 친환경 인쇄의 든든한 지원군

웁셋 인쇄잉크 시장에서 친환경 이슈가 대두된 이래 동양잉크는 선도적인 친환경 웁셋잉크 개발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작금에는 잉크업계 모두 친환경 인쇄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미네랄 오일 규제는 점차 가속화되어, 23년부터 MOAH 1%, 25년까지 0.1% 미만의 함유량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 및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EU, 북미,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는 친환경 실현을 위해 플렉소 인쇄시장이 발달하였고 연포장 인쇄에서도 Alcohol Type의 Gravure Ink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포장 시장은 각종 환경규제 관련 법규(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산업안전보건법 등)강화로 친환경 기조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기존 그라비아 인쇄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솔벤트 성분의 잉크 사용으로 인한 잉크 속건성이 높아 건조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고속 인쇄에서도 인쇄 색조가 안정적이며, 톤 재현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솔벤트 성분의 잉크의 성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건조, 전이성 및 후공정에서의 접착력 등의 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 과제인 만큼 동양잉크는 과감한 투자와 개발에 전력을 다해왔다.

동양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Alcohol Type Ink는 기존의 Gravure Ink에서 사용하는 석유계 용제를 배제하여 잔류용제 관리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친환경 인쇄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존 유기용제와는 달리 Alcohol Type의 경우 정전기 발생이 적고 1액형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작업의 편의성이 증대되며, 재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양한 필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상의 망점 재현성과 그라테이션 구현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인쇄 안정성을 보장한다.

동양잉크는 창사 75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사업전략인 친환경 잉크 및 연포장 부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중견 및 신규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설비증설을 통해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신공장 설립을 위하여 천안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4,3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 공장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75년간 기술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인쇄업계와 동행하였던 동양잉크는 “연포장 시장에서의 잉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투자에 전력할 것이며, 인쇄업계 정보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동종 업계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도 무한경쟁보다는 연포장 산업전반의 기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